

D-15 4·9 총선 이슈 ② 민주당 독식 재현되나

무소속 돌풍... '씩씩이' 힘들 듯

18대 총선을 바라보는 호남권 유권자들의 심정은 착잡하다.

지역민들은 통합이 이뤄진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 어느 때보다 강한 편이어서 민주당의 호남 의석 독식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결과다. 하지만 민주당의 호남 공천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커 경쟁력 있는 무소속 후보와 한나라당 후보가 선전할 것이라 관측이 어렵지 않게 나오고 있다.

◇민주당 독식=이번 18대 총선에서 광주·전남지역 20개 의석 중 최하 18석, 삼하계는 전 의석을 민주당이 차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분당한 17대 총선에서도 광주·전남 전체 의석 수 20개 중 19석을 두당이 차지하고 무소속은 1석에 불과했다. 때문에 통합 후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무소속 돌풍이 변수=하지만

여론조사 민주당에 앞서는 후보도 한나라당도 '교두보 확보' 기대감

공천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면서 '민주당 석권'을 예상하던 목소리가 힘을 잃어가고 있다. '비리 전력자 공천 배제'의 틈을 비집고 낙점 받은 공천자 상당수가 배제 인사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평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못한 인사들이 상당하다는 평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비판적 시각에 따라 목표에서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상열 의원, 무안·신안에서 김홍업 의원과 이윤석 전 전남도의회 의장, 광주 남구에 강은태 전 의원, 광주 광산구에 송병태 전 광산구청장이 무소속 출마를 결행했다. 이들

모두 지역구에 상당한 조직적 기반과 명성을 갖고 있어 민주당 공천자들을 위협하는 상황이다. 최하 2석 정도는 무소속이 가져갈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이를 반영하듯 23일 발표한 KBS 여론조사에서는 목표의 무소속 박지원 후보가 민주당 정영식 후보를 0.8%포인트 앞섰으며, 광주 남구의 무소속 강은태 후보는 민주당 지병문 후보를 11.9%포인트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발표한 조선일보와 SBS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광주 남구의 강 후보는 지 후보를 21.5%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으며, 목표의 박 후보는 정

후보를 1.4%포인트 앞섰다.

◇한나라당 1석 가능하나=한나라당은 이번 총선에서 광주·전남지역 20개 전 지역구에 공천자를 냈다. 17대 총선 때 광주 1곳, 전남 5곳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괄목할 만한 변화다. 그만큼 호남에서 한나라당의 입지가 변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 연말 대선 호남득표율은 광주(8.6%), 전남(9.2%) 전북(9.0%)에서도 나타났다. 비록 두 자릿수를 기록하지 못했지만, 2002년 이회창 후보가 광주(3.6%) 전남(4.6%) 전북(6.2%)에서 얻은 것보다는 상당히 늘었던 것이다.

때문에 한나라당에서는 무소속 후보가 강세를 보이던 지역 등에서 흑시나 1석을 건지면서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100만 서명 "U대회 광주유치 파이팅"



24일 광주시청 광장에서 열린 '2013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기원 서명 100만명 달성 기념행사'에 참가한 자원 봉사자, 시민 등 500여명이 대회 유치를 다짐하는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관련 기사 9면>

/내무기자 mjna@kwangju.co.kr

쌀값이 크게 뚝뚝

2년만에 최고치 ... 중국산 → 전남산 둔갑 부작용 속출

쌀값이 크게 오르고 있다. 최근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가파른 상승세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산지 비 재고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쌀값 상승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돼 서민가계에 적지않은 부담을 주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중국산 등 밥쌀용 수입쌀이 전남산으로 둔갑 관매되고 있어 쌀 유통 체계마저 뿌리째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광주지역 유통업체와 농협전남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소비자 쌀값(20kg)은 최근 6개월만에 품목별로 최소 2%에서 6%까지 올랐다. 할인점에서 A제품 쌀은 지난해 9월 3만8천500원에서 올 3월 4만800원으로, B제품은 4만3천500원→4만4천300원으로 뛰었다.

3월 현재 전국 평균가격(80kg)도

18만3천51원으로, 지난 2006년 3월(17만2천375원)에 비해 6.19%(1만676원) 올라 2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이처럼 쌀값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데는 국내 전체의 쌀 재배면적이 급감하고 1991년 이후 최악의 작황부진으로 생산량마저 줄어든데다 글로벌 곡물위기로 인해 심리적 불안감이 확산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전남도내 쌀 재배면적은 19만3천64ha로 2006년 19만5천161ha에 비해 1.07%(2천97ha) 감소했다. 지난해 쌀 생산량은 81만6천147t으로 전년 89만2천241t보다 무려 8.5%(7만6천94t)나 줄었다. 전국 생산량도 전년 대비 27만2천t 감소한 440만8천t에 그쳤다.

이로 인해 전남지역 농협내 비 재고량이 전년 동기 대비 85% 수준인 18만6천t으로 줄어 산지비값과 소비자

쌀값을 밀어올리고 있는 셈이다.

농협전남지역본부 관계자는 "비 재고량 부족과 함께 쌀값 오름세를 기대하고 있는 농업인들이 출하를 꺼리고 있어 쌀값은 당분간 상승세를 지속할 것"이라며 "올해로 도입 3년째를 맞는 밥쌀용 수입쌀 가격도 지난해보다 1천원 가량 오른데다 국내산으로 둔갑, 유통질서를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한나라 비례대표 '무늬만 호남 배려'

30% 약속 어기고 지역정서 모르는 인사로 생색

한나라당이 '비례대표 의석 호남 30% 배려' 약속을 어기는 등 호남인의 기대를 저버렸다. <관련기사 3면>

한나라당은 24일 '빈민촌의 대모'격인 강명순 목사를 비례대표 1번, 한선병을 극복한 임두선 한빛복지협회 회장을 후보로 각각 확정하는 등 비례대표 후보 50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 명단에서 호남 출신 인사들은 2번 임 회장(해남), 4번 강성현(전북) 한국노총 부위원장, 6번 김장수(광주) 전 국방장관, 7번 김소남(보성) 전국 호남향우회 여성회장, 22번 이정현(곡성) 전 당 부대변인, 28번 박재순(보성) 전남도당 위원장 등이 당선 가능 및 안정권에 포진했다.

'호남권 30%' 약속에 따라 광주·전남 6명을 포함해 호남에 9명이 공천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30번 조영래 전북새마을회장을 포함, 7명에 불과했다. '30% 약속'은 당헌·당규상 '전라지역에 30%를 배정한다'는 규정에서 따온 것으로, 한나라당은 당초 '호남 지역에 30%'라고 명시했다가 지역색이 너무 강하다는 이유로 '전라지역에 30%'로 변경했다.

특히 이들 공천자도 호남을 대변하는 인사는 기껏해야 박재순 도당위원장과 이정현 전 부대변인 정도고 나머지는 직능대표나 전문가, 여성 몫 등으로 할당됐을 뿐 '무늬만 호남 인사 공천'을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

게 됐다.

또 이 같은 호남 배제 비례대표 공천은 지난 총선 때에 이은 것으로, 당시 박근혜 대표는 호남에 3석을 배려하면서 지역 정서를 모르는 문화·배일도·김애실씨를 각각 공천했다.

이 같은 상황임에도 조윤선 대변인은 "호남출신 인사들을 순위 30번 이내에 7명을 배정, 한나라당의 호남 지역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반영했다"고 말해 반축을 사기도 했다.

한편, 통합민주당도 이날 비례대표 후보 1번에 여성 금융전문가인 이상남 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2번에 박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을 배치하는 등 비례대표 40명의 명단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18대 총선 후보 오늘부터 등록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가 25~26일 이틀간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공식 선거전에 들어간다. 지역구 출마자는 관할 시·군·구 선관위, 비례대표 후보자는 중앙선관위에 각각 등록하며 후보등록 다음날인 27일 0시부터 13일간 공식 선거운동을 벌이게 된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총선에 여야 4당과 '친박연대' 등 군소정당 공천자, 무소속 출마자를 합쳐 모두 1천300여 명이 출마, 경쟁률이 5대1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광주·전남 20석 등 총 299석이 걸려있다.

부재자투표는 다음달 3, 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실시되며 본투표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홍행기자 redplane@

